
외래어표기법의 된소리 표기 허용에 대한 맥락 잡기

김슬옹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1. 외래어표기법으로 길 잃은 외래어

어문규정 가운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 왔지만 그렇다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외래어표기법이다. 그것은 규정 자체의 문제 탓도 있지만 근본은 외래어 속성의 이질성이나 특수성 문제이기도 하다.¹⁾ 그로 인한 갈등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어문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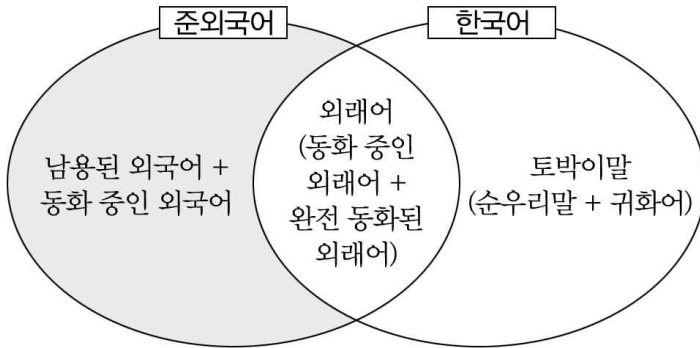
국어 교과서에서는 ‘외래어’를 한국어의 한 갈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전과 어문규정에서는 마지못해 한국어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²⁾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외래어를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어처럼’이란 말은 외래어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어의 한 범주로 보는 교과서 인식과는 격이 다른 자리매김이다.

1) 그동안의 쟁점이나 주요 논의 흐름은 김선철(2008)에서 정리되었다.

2) 이런 점은 박종덕(2007)이 자세히 다루었다.

외래어표기 규정도 본래 한국어와는 달리 받침을 일곱 글자로 제한하고(2항), 된소리를 거의 배제해(3항) 다양한 외래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다.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는 1항부터 문제인데 이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쓰지 말라는 의도라고 한다. 그러나 2항, 3항에서 실제 한글 자모를 제한하고 있기에, 공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표준어 규정에서 규정한 자음자 19개, 모음자 21개조차도 무시한 잘못된 규정이다. 외래어에 한국어의 정체성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정희원(2004)에서 지적하였듯이, 외래어표기법의 예시 대부분을 외국어로 들어 놓아 그런 갈등을 부추겨 놓았다. 이는 새로 유입되는 외래어를 염두에 둔 조치이겠으나 대부분의 예가 그렇다는 것은 결국 외국어 남용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격이다. 물론 외래어표기법은 이미 들어온 말보다는 앞으로 문제가 될 외국어나 외래어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일리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예를 외국어로 삼은 것은 외래어를 국어로 보는 전략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모순이다.



[그림1] 외래어 자리매김도

외래어의 자리매김은 [그림1]처럼 보는 것이 좋다. 한국어의 일부 범주로 보되, 외국어와의 연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배치도이다. 준외국어란

한국어로 유입된 외국어를 말한다. 준외국어 영역의 음영 처리는 어원이 외국어이고 준외국어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지만 외국어는 아니라는 의미다. 곧 준외국어는 한국어 속에서 쓰이고 있지만 도저히 외래어로 볼 수 없는, 남용된 외국어와 외래어로 될 가능성이 있는 동화 중인 외국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외래어는 토박이말과의 동화와 갈등, 남용된 외국어와 동화 중인 외국어와의 갈등에 노출되어 있다. 외래어도 ‘학교’와 같이 토박이말과 거의 구별이 안 되어 귀화에 버금가는 완전 동화된 외래어가 있는가 하면, ‘콘텐츠’와 같이 아직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화 중인 외래어도 있다. ‘까페’처럼 어문규범(카페)과는 다르게 동화된 말도 있다. ‘까페’와 같이 잘못 썼다고 비판하기는 ‘짜장면’을 욕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런 중간적, 복합적 성격 때문에 외래어표기법 규정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대신 더 나은 대안을 찾으면 된다.

이에 대한 논의 또한 앞선 연구자들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그런 논의의 반복보다는 된소리 표기 문제의 근원적인 맥락을 재구성하도록 한다.³⁾ 외래어표기법의 된소리 표기 문제는 한국어의 보편성 문제와 외래어만의 특수성 문제, 발음과 표기의 갈등 등이 뒤엉켜 있기에 근본 맥락을 짚어 보자는 것이다.

2. 외래어에 대한 이중 전략

외래어 된소리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래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그림1]처럼 한국어로서 인정하되 그 특수성을 존중하면 된다. 그에 따라서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어 전통 조어법대로 바꿀 수 있는 어휘 분야에서는 외래어 유입을 최소화하는 민족주의 관점을 따르고, 어쩔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고유명사나 특정

3) 맥락 접근에 대해서는 김슬옹(1998), 김슬옹(2005) 참조.

전문 용어 따위는 과감하게 개방적 관점(원음주의)으로 받아들여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다중 전략이 필요하다. 관용화된 것은 최대한 존중하고, 새로운 흐름에 따라 ‘모택동, 마오쩌둥’처럼 관용과 새 방식을 병행하는 것은 복수 표준어처럼 인정할 수 있다.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호치키스, 호치케스, 스테이플러, 스테폴러’와 같이 어떤 말로 쓰느냐를 갈등하기보다 ‘짜개(현행 순화어)’라는 새로운 말로 만들어 쓰는 것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다. ‘포스트잇’처럼 아리송한 외래어보다 ‘붙임쪽지(순화어)’나 ‘붙뿔쪽지(김슬옹식 새말)’를 만들어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면에서 국립국어원에서 막 들어온 외국어나 퍼지고 있는 외래어를 누리꾼들과 함께 우리 식대로 바꾸고 있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정책은 매우 느껴운 일이다.

차선책으로 받아들여 쓴다면 이때는 한국어와 표준어의 외연을 넓히는 개방적 관점에 따른다. 한국어는 단일 표준어로만 규정되는 단일체로서의 언어가 아니다. 표준어 외에 비표준어인 사투리도 한국어이다. 표준어로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이상규(2008)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제는 서울말에 없는 사투리는 무조건 표준어로 수용하는 개방적 표준어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언어의 복합성과 중층성에 주목한다면 외래어는 한국어 범주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매김된다. 표준어라도 4천만이 다 아는 말도 있고 극소수만 아는 표준어도 있는 것이다.

개방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원음 근접주의’를 따르게 된다.⁴⁾ 현행 한글 자모로 표기가 가능한 한,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다. 어차피 한글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한국어와 외국어의 음운체계가 다르므로 외래어를 원음과 똑같이 적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조차 잘못된 것이다. 다만 한글이 발음 기호는 아니지만 발음 기호에 근접하는 자질문자라는 특성 때문에 근접 표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된소리 표기를 배제하는 것은 이런 원음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콩트’가 원음에 가까우니 ‘퐁트’가

4) 보통 청취지각적 원음주의라고 한다.(김선철 2008)

가까운지 판단하기 어려워 ‘콩트’를 선택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 ‘퐁트’가 더 가까운데도 배제했다면 이는 지나친 편의주의다.⁵⁾

물론 그 어떤 문자보다도 원음 근접주의에 적합한 한글의 뛰어난 장점은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현행 한글 자모에 없는, ‘빙’과 같은 사라진 글자를 사용해서 표기하자는 극단적 이상주의(발음 기호나 국제 음성 기호와 같은 특별 목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도 있고, 문자 표기와 발음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원음과 가깝게 적다 보니 외래어의 이질성이 높아져 그로 인한 갈등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은 세계화 흐름과 관습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다.

이런 문제는 한글이 자질문자로서의 우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글은 세계 여러 문자 가운데 발음 기호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자질문자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원어에 최대한 가깝게 적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원어 표기에 대한 지나친 욕망 또는 이승만식 표기 욕망(무조건 소리 나는 대로 적자는 생각)을 부추긴다. 그러다 보니 없어진 글자까지 되살려 표기하자는 이상론도 등장하는 것이다.

외래어를 한국어의 한 범주로 본다면, 맞춤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 원리나 주요 흐름은 적용할 수 있다. 곧 새로 유입되는 외래어에 한해 “제1항 한글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 원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른바 원음에 최대한 가깝게 하되, 역시 한국어 음운체계를 최대한 존중하여 표기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음소문자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세계화의 흐름에 걸맞은 잣대가 된다. 이런 점이 아니더라도 항상 기준이 중요하데 이미 들어와 널리 쓰이는 말이야 관습이 주요 잣대가 될 수 있지

5) 외래어표기법의 된소리 문제에 대한 비판은 홍순성(1995), 김상준(1996) 등에 제기된 이래, 김하수(1999), 정국(2003), 연규동(2007)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외래어 비판 논문 곳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는다.

만 새로 들어오는 말들은 원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청취
지각력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자체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청취지
각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현행 한국어의 음운체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3. 된소리 표기 배제의 주요 문제

3.1. 획일주의에 대한 반성

된소리 표기를 막는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다.

무성 파열음 [p, t, k]는 영어나 독일어에서는 거센소리로 나고, 프랑스
어, 러시아어에서는 된소리에 가깝게 나는데, 이것을 거센소리로 적기로 통
일했다. 파리, 카페, 콩트, 코냑, 피에로, 아틀리에, 모스크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언어에 따라 무성 파열음이 된소리에 가깝게 나기도 하고 거
센소리에 가깝게 나기도 하는데 이것을 언어마다 달리 표기하게 되면 표기
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거센소리로 적기로 통일한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에서 우리는 외래어표기에 대한 지나친 편의주의를 보
게 된다. 외래어는 어차피 다양할 수밖에 없다. 외래어를 국어로 자리매
김한다면 외래어의 특수성(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
외래어표기법의 표기 일람에서는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외, 에스
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등 15개국
의 한글 대조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보완·설명하는 표기 세칙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18개국의 세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따로 세칙을 통해
세밀하게 표기법을 안내하면서 굳이 “언어마다 달리 표현하면 혼란스럽
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여기 제시된 나라들만이라도 세칙을 보완하

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에 준하거나 개별 어휘별로 사전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뻔한 발음을 막는 것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는 국립국어원 가나다 상담과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 문의에서 외래어 된소리 발음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규정은 “파열음 표기에만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도 모음 앞의 [p], [t], [k]는 ‘ㅍ’, ‘ㅌ’, ‘ㅋ’으로 대응되어 있고, [표2] 에스파냐어, [표3] 이탈리아어, [표4] 일본어의 가나, [표5] 중국어의 주음부호에 이르기까지 각 언어의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철저히 차단시키고 있다.

문제는 파열음에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어 마찰음 /s/도 ‘씨비스, 씨스템, 쉐터’가 아니라 ‘서비스, 시스템, 센터’이다. 독일어 파찰음 /ts/도 ‘모짜르트, 쥘리히’가 아니라 ‘모차르트, 쥐리히’다. 이는 된소리 표기 제한이 단지 언어학적 이유만이 아니라 된소리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국(2003:191)에서는 이러한 “무성폐쇄음=격음”이라는 획일화로 인해 한국인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t=ㅌ, p=ㅍ, k=ㅋ’으로 무조건 발음하는 교육적 폐해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2. 소통과 욕망의 문제

맞춤법은 합리적 소통을 위한 장치다. 이때의 합리성은 자유로운 표현 욕망을 제어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전략에서 필요하다. ‘초콜릿, 초콜렛, 초콜렛, 쪼콜렛’ 등을 다 허용한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표현 욕망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란을 초래하고 선택의 갈등으로 오히려 욕망을 제어하게 된다. 따라서 ‘초콜릿’이란 통일된 규범어 덕에, ‘초콜릿’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단어를 통한 무한한 표현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된소리 표기 자체를 제어하는 것은 표현 욕망으로 보면 합리적 소통이 아니라 폭력적 억압에 가깝다.

어떤 글을 쓰더라도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표기하지는 않을 작정이다. 그것도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짜장면이라고 쓰면 맞춤법에 맞게 기어이 자장면으로 쓰라고 가르친다. 우둔한 탓인지는 몰라도 나는 우리나라 어느 중국집도 자장면을 파는 집을 보지 못했다. 중국집에는 짜장면이 있고, 짜장면은 짜장면일 뿐이다. 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어른들이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배워서 자장면이 아닌 짜장면을 사주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안도현(2000), 『짜장면』, 열림원, 122쪽.

지나친 획일주의는 위와 같은 욕망의 저항을 낳게 마련이다. 최소한 발음이라도 허용했다라면 위와 같은 학생들에게 표기는 ‘갑자기[갑짜기]’와 같이 ‘자장면’으로 표기하지만 발음은 ‘짜장면’으로 해도 된다고 설득할 수 있겠으나 지금 규정으로는 위와 같은 표현 욕망을 달랠 길이 없다.

물론 ‘마오쩌둥(모택동, 毛澤東)’과 같이 고유명사에서 쓰고 있고, ‘빵, 껌, 뼈라, 히로빵, 빨치산’ 다섯 단어에 한해 된소리 표기를 허용했다. 다섯 단어만의 특별한 맥락이 있는 것이지만, 이는 관습적 예외 조항으로 오히려 된소리 표기 욕망을 자극할 뿐이다.

외래어표기법의 이런 궁색한 된소리 표기 규정은 된소리를 되도록 억제하려는 순화 논리가 깔려 있다. 물론 어문규정은 근본적으로 순화 규범이다. 통일과 표준은 근본적으로 순화 전략이기 때문이다. 쌍소리가 대부분 된소리로 되어 있는 데다가 ‘짜랑해요, 쪼주’ 등과 같이 제멋대로 말꼬기가 언어 순수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된소리는 예사소리에 비해 강하다 보니 강조 효과가 있고 그런 효과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설령 단점이 있다고 해서 장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어문규정은 근본적으로 순화 규범이다. 통일과 표준은 근본적으로 순화 전략이기 때문이다. 다만 ‘된소리’ 문제에는 지나친 순화주의가 깔려

있다. 된소리는 다양한 언어 양식을 규정짓는 변별 요소인데도 마치 사회의 잘못된 현상의 지표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된소리 표기 제한은 한국어의 기본 음운체계를 부정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자질문자로서의 한글의 우수성을 무시하는 행위다.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변별에 따른 표기 문자의 정교한 배치를 왜 부정하는가.

3. 현실적 대안: 표기와 발음 표시 이원화 전략

외래어표기법은 별도의 발음법이 없고 사전에서 따로 나와 있지도 않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글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고 가나다 게시판에서 안내하고 있다. 결국 된소리 관련 어휘들은 ‘서비스’건, ‘버스’건 무조건 예사소리로 읽어야 한다. ‘디스켓’을 연음 발음까지 고려하고 7중성법(ㄱ, ㄴ, ㄷ, ㅁ, ㅂ, ㅅ, ㅇ)을 적용해 ‘디스켓(디스케시)’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면 외래어표기의 한글은 발음 기호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 한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발음 표기를 전근대적인 7중성 표기로 한정하는 것은 오히려 한글의 장점을 무시한 태도이고 다양한 받침 글자가 쓰이는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영어는 거의 모든 단어에 발음 기호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배우기는 더디고 불편해도 표기와 발음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갈등이 없다. 그러나 한국어는 발음 표시가 삼원화되어 있고 발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단어들도 꽤 많은 것이다. 그래서 편리한 점이 대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발음과 표기의 혼동을 불러일으킨다.⁶⁾

6) 이를테면 표기는 ‘신여성, 남존여비’이지만 발음은 ‘[신녀성], [남존녀비]’이다.

소리01 「명사」

꽃01 [꽃] [꽃이[꼬치], 꽃만[꼰-]] 「명사」

집01 [집만[짐-]] 「명사」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단독으로 발음되건 다른 말이 결합되건 일관된 음운으로 발음되는 것(소리)은 당연히 아무 표시가 없고, 단독으로건 다른 말이 결합되건 달리 발음되는 것(꽃), 단독으로는 표기나 발음이 일치하지만 다른 말과 결합될 때만 변동되는 것(집)이 달리 표시되어 있다. 물론 이런 변동 원리는 맞춤법 규정에 있는 것이지만 대중의 언어생활에서는 그런 규범보다는 이런 식의 사전 도움표기가 더욱 가치가 있고 요긴하다. 이런 맥락 때문에 남영신(1998)에서 맞춤법 규정을 없애고 사전 중심으로 가지는 견해가 설득력 있다. 물론 필자는 병행주의다. 영어처럼 문자의 한계 때문에 개별 단어별로 접근하는 언어야 사전이 절대적이지만 한국어와 한글은 그렇지 않으므로 병행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외래어표기는 발음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service)

버스02(bus)

외래어도 일반 맞춤법 적용 전략에 따라 차재은(2007), 박동근(2007)의 제안대로 발음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 버스'와 같이 올림말에 발음 정보가 없는 경우, '[씨비스/씨비쓰], [삐쓰/뽀스/버쓰]'와 같이 된소리 발음이 들어가는데 표기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인지 그냥 표기대로 '[서비스], [버스]'로 읽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물론 원음주의로 간다면 '소리'와 같이 별도의 발음 표시가 필요 없는 말들이 늘 수 있다. 그러나 외래어의 특수성으로 그렇지 않은 말들이 많으므로 토박이말의 발음 정보 전략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외래어의 된소리 발음을 무조건 표기에 반영하자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토박이말 관계를 따른다. 물론 토박이말이라고 해서 된소리 표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된소리 발음과 표기 관련 규정은 맞춤법에서는 5항, 53항, 54항에서 규정하고 표준 발음법에서는 6장 23항에서 28항까지 6개 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된소리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소쩍새, 할까?)과 발음은 허용하되 표기는 하지 않는 것(갑자기[갑짜기], 할걸[할겘]), 발음과 표기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효과[효과])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된소리 관련 표기 방법이 있는 만큼 외래어표기도 이런 흐름을 따르면 된다.

관습적으로 굳어진 ‘짜장면’과 같이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맞춤법의 가장 근본 원리인 원형 밝히기를 적용하면 된다. 이를테면 필연적, 보편적 변동에서는 발음의 규칙성이 있으므로 사전에서의 발음 표시로 해결하면 된다. 이 점은 박동근(2007: 47)에서 적절히 제시했다. ‘택시[-씨], 버스[-쓰], 텍스트[-쓰-]’와 같이 이음절에서의 /s/는 필연적으로 된소리가 나므로 굳이 ‘택씨, 버쓰, 텍쓰트’와 같이 표기하지 않아도 발음 표시로 가능하다. 어문규정에 외래어 발음 규정도 없고 사전에서도 발음 표시를 하지 않다 보니 아래와 같은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살펴보자.

[질문] 이수연(2008. 10. 16)_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저희 어머니가 사이드 미러를 계속 [사이드 미러]로 발음하시기에 사이드 미러를 찾아보았는데 발음이 적혀 있지 않고 그냥 ‘side mirror’로만 적혀 있더군요.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사이드라는 발음은 거의 [싸이드]로 발음되잖아요. 사이드미러 역시 [싸이드 미러]로 발음되리라 생각됩니다만. 발음 대신 영어 단어가 적혀 있다는 것은 그냥 영어 발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되면 ‘미러’에서 혀를 좀 꼬부러줘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문장에 섞어 말하기는 좀 어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사이드 미러(side mirror)’는 외래어인데,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이므로, 우리말 방식으로 쓰고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side'는 흔히 [싸이드]로 발음하지만, [사이드]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발음하신 [사이드 미러]가 맞습니다.

[질문] 소재인(2007. 6. 8) __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바나나’가 맞나요, ‘바나나’가 맞나요? 버스도 ‘빠스’가 맞나요, ‘버스’가 맞나요?

[답변] ‘바나나’, ‘버스’와 같이 표기하시는 대로 발음합니다.

[질문] 바다향기(2005. 1. 27) __국립국어원 묻고 답하기__박동근(2007: 46)에서 재인용

버스, 가스...와 같은 외래어는 발음을 [빠스]로 해야 하는지 [버스]로 해야 하는지 [가스]가 맞는지 [까스]가 맞는지 어문규정에 어느 부분을 근거로 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발음이 된소리가 안 난다고 해도 [버스]가 아니라 [버쓰]가 맞는 거겠죠?

[답변] 원칙적으로 표기된 대로 발음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어문규정에 는 외래어에 대해서 특별히 발음을 규정해 놓은 것이 없고, 현실적으로는 경음화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수연 질문자가 발음 대신에 외국어 어원이 적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외래어 정보 표시 모순을 정확히 짚었다. ‘side mirror’는 어원이므로 최소한 ‘←sidemirror’라고 표시해야 한다.⁷⁾ 이수연 질문자의 오해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의 사전 올림말 처리 방식은 외래어를 한국어로 대우하지 않는 관점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소재인 질문자 문의에 대한 답변은 거의 잔혹 수준이다. ‘버스’를 어떻

7) 한자어도 마찬가지다. ‘학교(學校)’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학교(←學校)’라고 표시해야 한다. ‘학교’와 ‘學校’는 쓰이는 맥락이 다르므로 같은 단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게 [버스]로 발음하는가. 대화 자체가 거의 힘들 뿐만 아니라, 버스를 불러 세워야 할 상황이라면 그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니 어찌 잔혹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2005년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오랜 고민거리임을 알 수 있다. 고민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내려오다 이런 잔혹한 답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상준(1996)에서의 제안처럼 표기 개정이 어렵다면 발음이라도 허용해야 한다.

4. 마무리

외래어표기법은 언중들이 편하게 언어생활을 하도록 있는 것이다. 지나친 통제 위주의 언어정책은 제대로 된 언어생활의 걸림돌이다. 그리고 이 글은 외래어표기법 규범을 개혁하는 논의의 장이므로 거시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그런 주장의 합리성을 찾아보았다. 한국어 맞춤법의 일반 범주를 적용하고 한글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외래어로서의 특수성과 한국어의 개방적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제시했다.

또한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는 것은 세계화 흐름에도 맞출 수 있고 또 북한 방식과 비슷해져 통일을 전제로 한 개혁 흐름에도 일치된다. 이런 점은 많은 이들이 누누이 지적을 이미 했다. 따라서 이 글은 그런 지적을 대중 관점으로 다시 정리하여 나름대로 강조하는 것뿐이다. 완벽한 대안은 없어도 더 나은 대안을 찾아 좀 더 올바른 언어생활의 디딤돌로 삼자는 것이다.

외래어표기법이 1986년에 제정되었으므로 20년이 넘게 흘렀고 시대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으니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그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욕망과 소통을 위한 합리적인 언어생활의 길을 위해서다. 어문규정 잘 지키다 더 이상 버스를 놓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참고 문헌

- 김상준(1996), 「외래어와 발음 문제」, 『새국어생활』 14-2, 국립국어연구원, p.62-72.
- 김선철(2008), 「외래어표기법의 한계와 극복 방안」, 『언어학』 15-2(여름), 대한언어학회, p.207-232.
- 김세중(1998), 「외래어의 개념과 변천사」, 『새국어생활』 8-2, 국립국어연구원, p.5-19.
- 김슬옹(1998), 「언어분석을 위한 맥락설정 이론」, 『목원어문학』 제16집,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p.5-65.
- 김슬옹(1999), 『그걸 말이라고 하니』, 서울: 다른우리.
- 김슬옹(2005), 「언어 분석 방법론으로서의 담론학 구성 시론」, 『사회언어학』 13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43-68.
- 김슬옹(2008), 「혼동 맞춤법 문제 연구-원형 밝히기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0집, 겨레어문 학회, p.21-54.
- 김하수(1999), 「한국어 외래어표기법의 문제점」, 『배달말』 25-1, 배달말 학회, p.247-259.
- 남영신(1998), 『국어 천년의 실패와 성공』, 서울: 한마당.
- 박동근(2007), 「국어사전의 외래어 발음 표시 방안」, 『겨레어문학』 39집, 겨레어문학회, p.41-66.
- 박종덕(2007), 「외래어 및 그 표기법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한민족문화연구』 23집, 한민족문화학회, p.157-181.
- 연규동(2006), 「‘짜장면’을 위한 변명: 외래어표기법을 다시 읽는다.」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p.181-205.
- 이상규(2008), 『등지 밖의 언어』, 서울: 생각의나무.
- 정 국(2003), 「외래어표기법과 외국어 발음」, 『외국어교육연구논문집』 17호, 한국외국어대학교, p.185-214.

- 정희원(2004),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14-2, p.5-22.
- 조경숙·김슬옹·김형배(2006), 『나만 모르는 우리말』, 모멘토.
- 차재은(2007), 「외래어 표준 발음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 35호, 한국어학회, p.363-390.
- 최용기(2003),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 한글문화연대(2007), 『바람직한 외래어 수립을 위한 학술토론회』, 한글문화연대.
- 허 응(1985), 「국어의 변동 규칙과 한글맞춤법」, 한글 187, p.3-48.
- 홍순성(1995), 「외래어표기 양상과 된소리」, 『언어논총』 13, 계명대학교 언어연구소, p.49-63.